2024년 04월 29일 09시 16분

청천 김집섭(□□ □□□)선생의 고향마을

청천 김진섭 선생은 1903년 이곳 목포에서 태어나 일본 호세이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하고 해외문학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해외문학 작품을 번역 소개하여 우리 현대문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. 한편 수필과 평론에 전념.「□□□,백운부」,「□□□,주부송」등 주옥같은 작품은 물론 「인생예찬,□□□□」,「□□□의 □□, 생활인의 철학」,「□□의 □□,교양의 문학」,「□□ □□□□□, 청천 수필평론집」등 불후의 명작들을 우리에게 남겼다. 이가운데 특히(수필의 문학적 영역은)현대 한국수필의 기틀을 잡는 명문장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. 선생은 6.25전란시 납북되어 생사를 알 수 없으나 우리문학에 끼친 공로가 크므로 한국문인협회가 SBS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현대문학 표징의 하나로 이 글을 새긴다.1998년 6월 20일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성춘복SBS 문화재단 이사장 윤세영

극작가 김우진 문학의 산실

수필가 김진섭의 고향

청천 김집섭선생의 고향마을

극작가 김우진 문학의 산실

(1897.9.19 ~ 1926.8.4)이곳은 신문학 초기에 극문학과 연극을 개척 소개한 수산 김우진선생이 청소년기(1908~1926)에 유달산 기슭을 무대삼은 희곡 「이영녀」 등을 썼던 자리임

수필가 김진섭의 고향

(1903.8.24 ~ ?)본적 전남 목포시 남교동(현 죽동)135번지 이곳 목포는 1920년대 부터 한국문학을 가꾸며 수필집 「□□□의 □□, 생활인의 철학」등을 남긴 청천 김진섭의 고향임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